

데스크초대석

영산재보존회장 한우 스님

“영산재(靈山齋)가 프랑스 국민들의 가슴에 꽃혔다. 한국불교의 전통 의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영산재를 본 프랑스 국민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의미를 알고자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프랑스 파리과 리옹 그리고 세리냥 등 3개 도시에서 영산재가 공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은 의미가 아닌데, 현지인들의 격찬과 환호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연’의 차원을 넘어 선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계기였기 때문이다. 영산재보존회

가 프랑스 파리 소재 세계문화의 집이 주최하는 ‘세계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돼 3월 28일부터 3일간 파리 생제르맹 오 디토리움에서 공연을 펼쳤다. 또 4월 1일과 4일에는 리옹의 국립오페라 극장과 세리냥 시립극에 극장에서 공연을 펼쳐 관객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영산재의 첫 해외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영산재보존회 회장 한우 스님(봉원사 주지)을 만났다.

“영산재 파리 공연 성황...세계화 성공적 첫 발”

-프랑스 공연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작년 5월 문화관광부(당시 명칭)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프랑스 공연이라는 큰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광부에서는 프랑스로부터 ‘세계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할 한국의 공연물로 영산재를 추천한 겁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6일 프랑스 문화관의 관광 에스코비씨가 방한 해 봉원사에서 열리는 영산재 시연의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전통 공연을 관람했고 최종적으로 우리 영산재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30명의 회원들이 프랑스로 가서 3개 도시에서 5차례의 공연을 했습니다. 또 선암스님의 영산재 사진작품 전시회도 열렸는데, 관객들에게 영산재를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산재는 상당히 긴 의식인데 공연은 어떻게 진행 됐는지요?

무대에서의 공연은 순수 의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객이 한국 불교의식에 생소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유자인 구해 스님의 주도로 90분 분량의 의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도량석과 흥고 입장(예불) 등 모두 16가지의 의식을 간소하게 꾸며 영산재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음악적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냈습니다. 리옹과 세리냥 두 공연은 70분 정도로 더 간소화 했습니다. 비록 전 바깥은 보여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영산재의 맛을 충분히 살린 공연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포나 교포2세대들도 관람 했을 텐데요.

먼저 프랑스 사람들의 관람 자세에 우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관람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바로 극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공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무리지어 공연단을 찾아와 공연내용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 매우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문화



적 수준이 참으로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포들이나 교포 2세는 한결같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영산재를 접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영산재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종교의 식인데 프랑스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영산재의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시키려는 것이 무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한 두 번의 공연으로 극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영산재가 갖는 시각적인 화려함 속에 생과 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공연 후 받은 질문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

습니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영산재가 망자(亡者)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살아 있는 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란 점만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영산재보존회는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공연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파리공연에 귀한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국 리크 스미스 국장과 관련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스미스 국장과 직원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공연을 관람했고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등재 추진작업이 진행되면 그들은 영산재를 귀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존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산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들의 정리가 급선무입니다. 영산재의 근원과 의미 변천과정 등 관련 사료들과 시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소개하지 않으면 영산재의 세계화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공연도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영산재의 먼 뿌리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영산재의 전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계가 영산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영산재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의 공연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프랑스 공연은 영산재의 세계화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계기였습니다. 매년 6월 6일에 봉원사에서 봉행하는 영산재 시연에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재 관련 자료축적과 서적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세계화를 위한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원 기자



파리·리옹·세리냥 등 프랑스 3개 도시에서 펼쳐진 ‘영산재’ 공연장면(위 사진)과 공연장에 마련된 선암 스님의 ‘영산재 사진전’ 사진제공=선암 스님

파리·리옹·세리냥 공연
프랑스 현지인들 큰 환호
교포들도 “자부심 느껴”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관련 사료 등 체계적 정리
각국 언어로 번역 급선무

유기농 황토삼백초 POWER BRAND

초여름 꽃 주위의 잎 3개가 어느날 갑자기 백색으로 변해 ‘삼백초’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또 꽃이 희고, 잎이 희고, 뿌리가 희다고 ‘삼백초’라고 한다. 백색으로 변했던 잎이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본래의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식물로 우리몸을 정화하는 신비의 ‘정화초’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효능 때문에 멸종의 수난을 겪어온 삼백초를 (주)천동소리 김삼목 원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황토 삼백초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력과 특화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주)천동소리에서는 황토 삼백초를 먹기 편하도록 제품화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주)천동소리 055)945-2976

전국 대리점: 대구·010-2531-4785 · 인천·011-336-5843 · 대전·010-7752-6009 · 대전·042-536-8852 · 전주·010-5706-1002 · 부산·017-556-8311

국우애당식물, 국우애당차, 황토삼백초월병, 황토삼백초차, 황토삼백초패밀리, 황토삼백초주술액, 즐거운하루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행화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사부대중선물, 특무명, 3-1 끈, 3-1 밴드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90,000원 • 규격: 220-255mm • 색상: 회색, 검정색

• 가격: 90,000원 • 규격: 220-255mm • 색상: 회색, 검정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